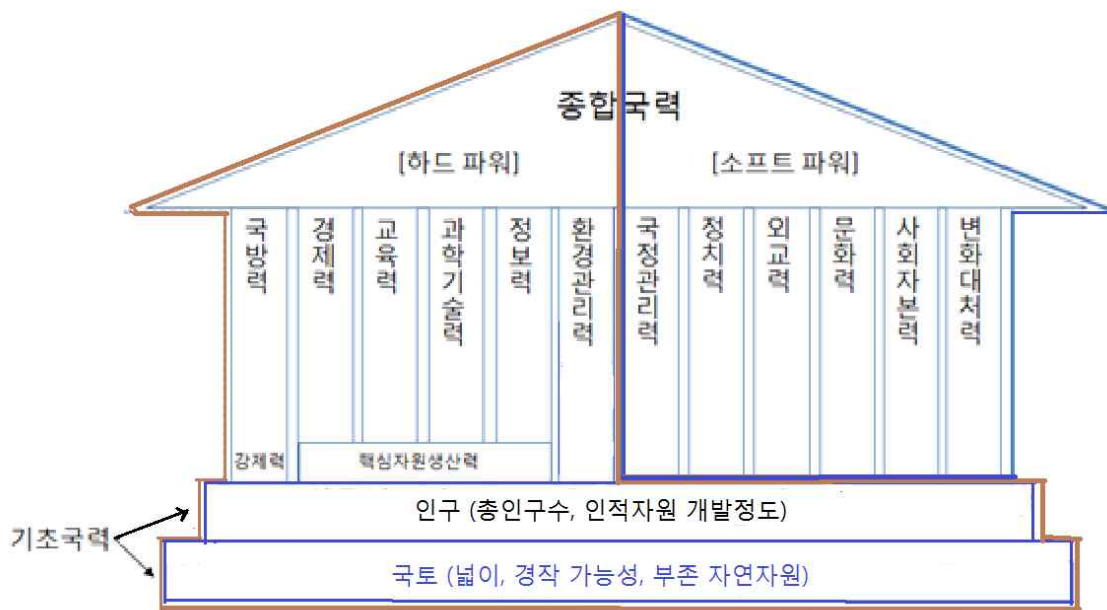


국가전략과 종합국력

한반도선진화재단(이하 ‘한선재단’)은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올해 또 다시 G20 국가들의 종합국력을 상호 비교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국력’이란 한 국가가 실현코자 하는 것을 실현해내는 능력을 의미하고, ‘종합국력’이란 한 나라가 이런 의미의 국력을 소지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요소능력들의 총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상호 비교의 대상이 된 G20 국가들은 원래의 G20에서 EU를 제외하는 대신 스페인을 포함시킨 20개 국가이다.

한선재단은 종합국력을 13개의 개별 요소국력으로 구성되고, 이 13개의 요소국력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국력, 즉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로 대별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종합국력 점수 산정 시 각 요소국력의 상대적 비중은 기초국력 5%, 국방력 10%, 경제력 20%, 교육력 5%, 과학기술력 10%, 정보력 5%, 환경관리력 5% (이상 하드파워 60%), 국정관리력 5%, 정치력 10%, 외교력 10%, 문화력 5%, 사회자본력 5%, 변화대처력 5% (이상 소프트파워 40%)를 적용하였다.

<그림> 종합국력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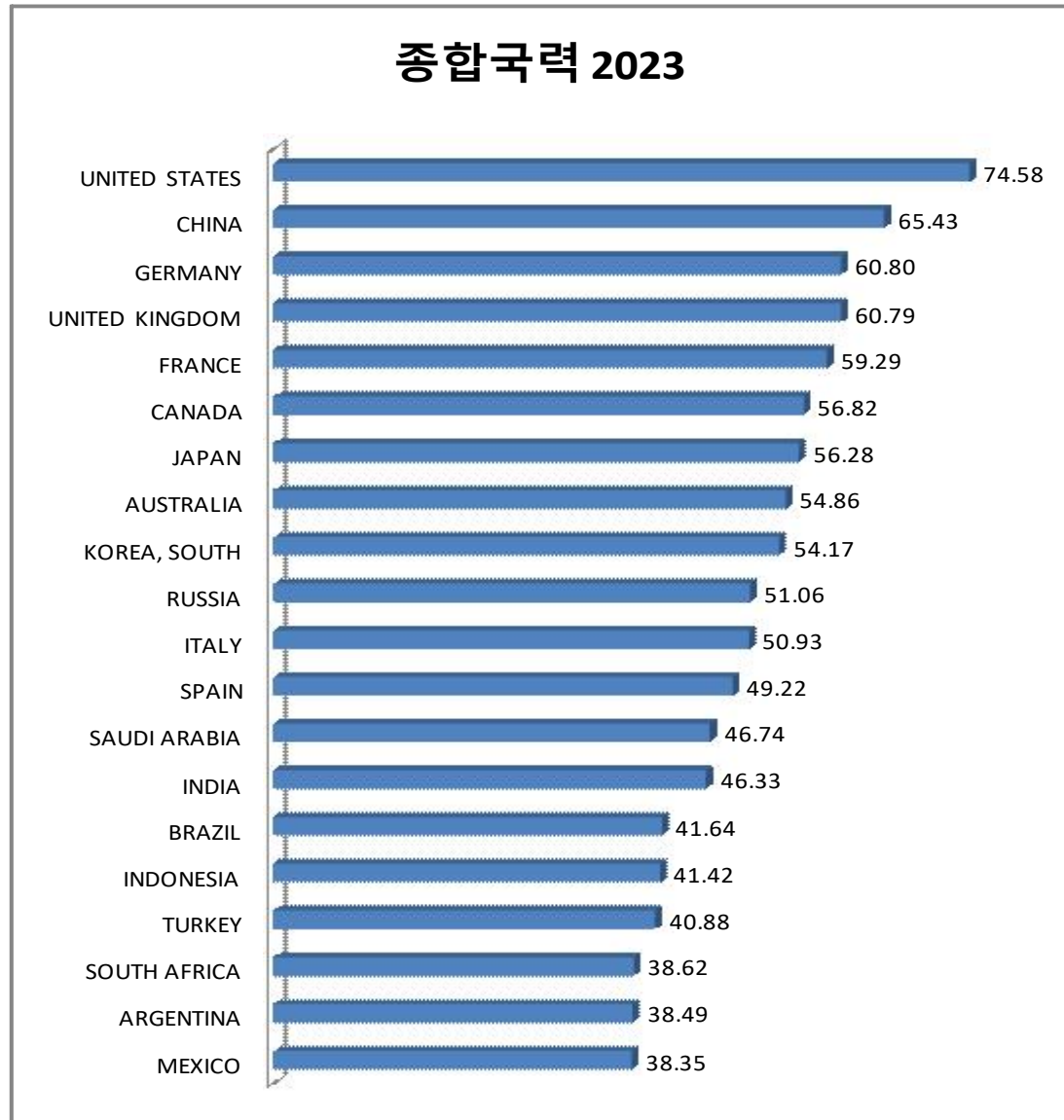


종합국력 측정 결과, 2009년 종합국력 13위에서 2014년 9위로 향상되었던 대한민국은 이번 2023년 조사에서 9위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4년 평가에서 전체 13개 측정 대상 국력 부문 중 8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여 여타 국가들과 현격한 격차를 보이면서 종합 순위 1위를 차지했던 미국은 이번 조사에서도 6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종합 순위 1위를 차지하였다.

<표> 종합국력 순위 변화: 2014년과 2023년

국기명	종합국력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2023	2014	기초국력		국방력		경제력		과학기술력		교육력		환경관리력		정보력		소계		국정관리력		정치력		외교력			
			2023	2014	2023	2014	2023	2014	2023	2014	2023	2014	2023	2014	2023	2014	2023	2014	2023	2014	2023	2014	2023	2014		
ARGENTINA	19	19	11	19	20	18	20	19	20	19	14	12	13	17	12	14	18	18	16	15	19	19	17	9		
AUSTRALIA	8	5	6	5	14	14	18	18	10	9	2	2	4	1	5	7	9	7	2	2	8	2	12	15		
BRAZIL	15	15	7	7	13	10	11	9	14	13	16	15	12	16	15	13	14	14	17	12	17	18	13	16		
CANADA	6	6	5	4	15	17	14	13	6	6	4	4	9	6	7	6	8	9	1	1	9	3	6	11		
CHINA	2	2	1	2	2	2	1	2	7	8	5	13	17	19	13	11	2	2	15	19	1	1	9	10		
FRANCE	5	7	13	6	7	7	8	7	8	5	7	5	2	8	11	5	7	6	6	5	4	7	2	2		
GERMANY	3	4	9	8	10	12	5	5	5	3	6	6	3	2	4	2	5	4	3	3	3	4	4	7		
INDIA	14	11	4	11	4	4	3	3	11	17	20	19	20	20	20	19	10	13	14	16	14	8	15	6		
INDONESIA	16	18	17	18	17	16	7	14	19	20	18	18	18	18	19	20	19	17	12	18	13	14	16	19		
ITALY	11	12	16	15	11	13	13	12	9	11	12	8	5	5	14	12	12	12	10	10	12	12	10	13		
JAPAN	7	8	10	12	8	8	4	4	3	2	10	11	6	7	9	4	4	3	4	7	10	10	5	5		
KOREA	9	9	15	14	5	5	12	10	4	7	8	10	10	11	3	9	6	10	7	9	11	15	11	12		
MEXICO	20	14	19	16	19	19	15	11	16	15	19	16	11	12	18	17	17	15	19	14	20	20	18	4		
RUSSIA	10	13	2	3	3	3	6	6	15	14	11	9	15	15	10	8	11	8	20	20	5	17	8	14		
SAUDI ARABIA	13	20	8	13	16	11	17	15	13	16	17	-	14	10	6	15	15	20	13	17	6	9	19	8		
SOUTH AFRICA	18	17	20	20	18	20	19	20	18	12	15	14	16	14	16	18	20	19	11	11	18	16	20	18		
SPAIN	12	10	14	10	12	15	16	16	12	10	9	7	7	3	8	10	13	11	9	8	16	11	7	17		
TURKEY	17	16	18	17	9	9	9	17	17	18	13	17	19	13	17	16	16	16	18	13	15	13	14	20		
UNITED KINGDOM	4	3	12	9	6	6	10	8	2	4	3	3	1	4	2	3	3	5	5	4	7	5	3	3		
UNITED STATES	1	1	3	1	1	1	2	1	1	1	1	1	8	9	1	1	1	1	8	6	2	6	1	1		

종합국력 2023



대한민국 국력의 몇 가지 특징을 보면, 첫째로 전체 평가 부문의 절반이 넘는 부문에서 2014년도에 비해 순위 상승을 보였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순위가 상승한 국력 분야는 과학기술력(7위 → 4위), 교육력(10위 → 8위), 환경관리력(11위 → 10위), 정보력(9위 → 3위), 국정관리력(9위 → 7위), 정치력(15위 → 11위), 외교력(12위 → 11위), 문화력(13위 → 10위) 등으로, 전체 13개 평가 부문의 반이 넘는 8개 부문에서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력(5위)은 2014년에 비해 아무런 순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국력, 경제력, 사회자본력, 변화대처력의 경우에는 각각 14위에서 15위, 10위에서 12위, 15위에서 17위, 6위에서 8위로 한 두 단계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전반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2014년도(하드파워 10위, 소프트파워 11위)와 마찬가지로 2023년도(하드파워 6위, 소프트파워 9위)평가에서도 여전히 소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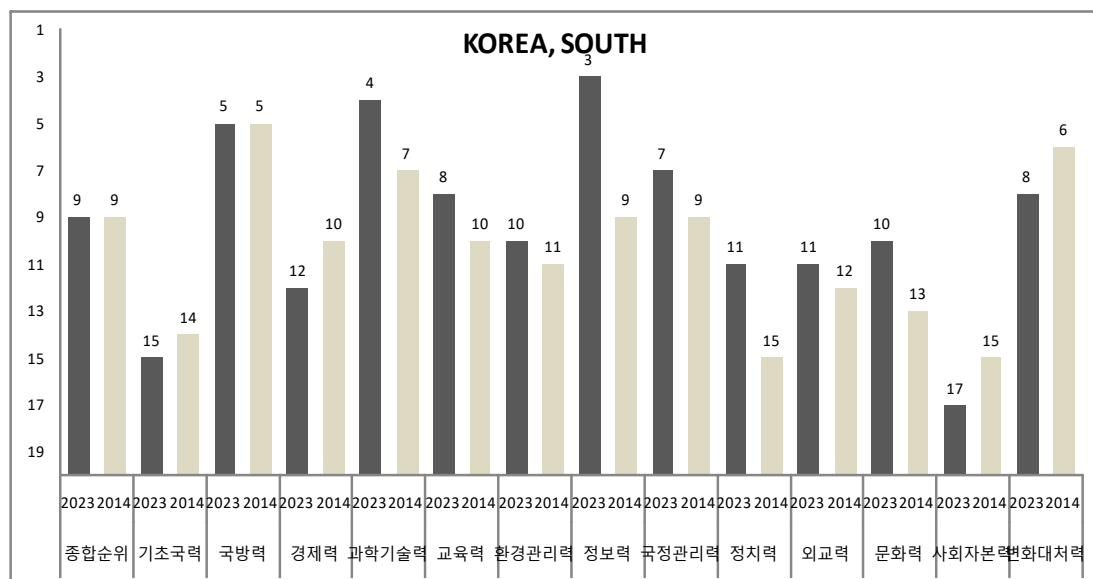
트파워보다는 하드파워가 더 강한 나라인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로, 대한민국이 종합국력 순위 9위를 차지하는데 있어 (+)요인으로 기여하는 요소국력은 정보력(3위), 과학기술력(4위), 국방력(5위), 국정관리력(7위), 교육력(8위), 변화대처력(8위)이며, 순위 하락에 기여하는 요소국력은 사회자본력(17위), 기초국력(15위), 경제력(12위), 정치력(11위), 외교력(11위), 문화력(10위), 환경관리력(10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하드파워의 분야별 순위를 보면, 기초국력은 2013년 14위, 2022년 15위로 큰 변화가 없었고, 국방력의 경우 미국 1위, 중국 2위, 러시아 3위, 인도 4위 한국 5위의 순위는 지난 10여 년 간 그대로 유지되었다. 경제력은 그 동안 인도네시아와 터키가 각각 14위, 17위에서 7위, 9위로 부상함으로써 우리나라는 10위에서 12위로 후퇴하게 되었다. 과학기술력은 프랑스 독일 캐나다를 추월하여 7위에서 4위로 향상되었고, 교육력은 중국에 추월당했으나 스페인, 러시아, 이탈리아를 추월하여 10위에서 8위로 순위가 향상되었다. 환경관리력은 11위에서 10위로 향상되었고, 정보력은 9위에서 3위로 큰 폭의 향상을 보였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상대방을 매료시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바꾸어 원하는 바를 얻어 내는 능력이라 할 수 있는 소프트파워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소프트파워는 2014년 11위에서 2023년 9위로 상승하였다. 2014년과 2023년 사이의 소프트파워 요소국력의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국정관리력은 9위에서 7위, 정치력은 15위에서 11위로, 외교력은 12위에서 11위로, 문화력은 13위에서 10위로 상승하였으나, 사회자본력은 15위에서 17위로, 변화대처력은 6위에서 8위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는 소프트파워를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요청된다 하겠다.

<그림> 대한민국의 국력 순위 변화 (2023←2014)



마지막으로, 하나의 세계적인 추세로는 G7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의 상대적 퇴조와 BRICS국가(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상대적 부상을 들 수 있다. G7국가들의 구매력기준 GDP의 합에 대비한 BRICS국가들의 GDP 합 비율 ($BRICS_GDP / G7_GDP$)은 1980년 26%에 불과했으나, 1990년 30%, 2000년 42%, 2010년 78%로 계속 커져왔고, 2022년 기준으로 104%로서 지금은 BRICS국가들의 GDP 합이 G7국가들의 GDP 합을 추월하게 되었다. 참고로 2022년 기준으로 BRICS국가들의 인구는 32.5억 명으로 G7국가들의 인구 7.7억 명의 4.2배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추세는 1980년 이후 지금까지 G20국가들의 GDP 순위 변화에서도 나타난다(<그림> 참조). 우리나라의 구매력기준 GDP 규모는 1980년에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20개국 중 최하위였으나, 2022년 현재에는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독일, 러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영국, 프랑스, 터키, 이탈리아, 멕시코에 이어 14위이다. 2010년에는 13위였으나, 그 동안 터키에 추월당했다. 중국은 1980년 13위를 차지했으나 2010년에는 2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현재는 미국을 능가하여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인도의 경제규모도 1980년 9위에서 2010년 이후 3위로 뛰어올랐다. 인도네시아와 터키의 상대적 지위 향상도 눈여겨볼만 하다. 한편 이탈리아는 1980년 이후 지금까지 5위에서 12위로, 프랑스는 4위에서 10위로, 일본은 2위에서 4위로 그 상대적 위상이 낮아졌다.

<그림> 각국의 GDP규모 순위 변화추이

